국민의힘,국회 본회의 보이콧 "4심제·대법관증원법은 반헌법적 쿠데타"

로텐더홀서 규탄대회 개최…송언석 "與, 李대통령 위해 사법시스템 파괴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전과 4범 대통령을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겠다고 헌정과 법치와 대법원을 뒤집고 국민 삶을 뒤엎어버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4심제 헌법소원과 대법관증원법, 법왜곡죄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총칼로 사법부를 겁박했지만, 이 정권은 법을 바꿔 판결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옛날에는 탱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은 법안으로 사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얘기를 수령 지령처럼 떠받들고 조선시대 왕명처럼 떠받드는 국회가 있다면 제대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이를 한 사람의 발밑에 두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채봉 기자

JW중외제약, '세계 빈혈 인식의 날' 캠페인 진행

'세계 빈혈 인식의 날' 맞아 임직원 대상 치료·관리 필요성 공유

JW중외제약 '페린젝트', 지난해 만 1세~13세 소아 대상 용법·용량 추가 변경허가 획득

JW중외제약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을 맞아 빈혈 치료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임직원 대상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2월 13일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로 환자혈액관리학회(SABM)와 비영리단체 휴먼터치미디어재단(Human Touch Media Foundation)이 지난 2022년 공동으로 제정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캠페인에서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을 소개하는 이미지와 빈혈 조기진단, 치료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빈혈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빈혈은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기준으로 빈혈을 진단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성인 남성 13g/dL, 여성 12g/dL 미만일 경우 빈혈로 정의한다.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만 10세 이상 인구의 빈혈 유병률은 7.4% 수준으로 남성은 2.5%, 여성은 12.7%로 조사됐다. 노년층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염증성 질환 등 만성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면역 및 세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기능이 저하되면 철분 등 조혈 영양소의 흡수·운반이 원활하지 않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 호흡곤란, 무기력감, 두근거림 등이 있다. 적절한 치료 없이 지속될 경우 손발이 차가워지고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빈혈을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2018년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10년 후 급성심근경색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혈은 조기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경구 철분주사제 또는 정맥 철분주사제로 치료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빈혈 치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를 공급하며 철결핍 관련 질환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한화생명, 겨울철 영업현장에 이동식 카페 이벤트 ' H카페'로 지원

이동식 카페 이벤트 ' H카페'로 전국 영업현장에 간식 및 감사 전달

전국 97곳 영업현장의 FP 28,000명 상대로 혜택 제공해 큰 호응

한화생명이 11일(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평택지역단 영업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힘쓰는 FP들에게 따뜻한 간식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일(금)부터 전국 영업현장에서 이동식 카페 이벤트 'H카페'를 진행하고 있다.

'H카페'는 각 지역단과 사업단의 지점장이 직접 이동식 카페에서 FP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행사다. 올 겨울 약 28,000명의 FP들과 온기를 나누며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카페 메뉴는 겨울철 특색에 맞게 마련했다. 음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애플시나몬과 고구마라떼를, 간식은 구운 군밤 및 가래떡을 제공해 FP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평택지역단 소속의 한 FP는 "아침에 빈 속으로 출근했는데 따뜻한 간식을 먹으니 온 몸이 다 녹는 것 같다"며, "영업현장을 생각해서 준비해준 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H카페'는 이달 27일(금)까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 피플라이프, 라이프랩, IFC, 콜센터 등 전국 영업현장 97곳에서 진행된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매년 이동식 카페 이벤트를 개최해 겨울철과 여름철 영업현장의 FP들을 응원하고 있다.

한화생명 김진석 CX전략팀장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 겨울 추위에 'H카페'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FP들에게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영업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

한국도로공사·CES Consulting, 전략적 MOU 체결

한국도로공사 미국 도로·교통 엔지니어링 기업과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월 10일(화)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도로·교통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CES Consulting*과 미국 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CES Consulting : 건설·사업관리, 교통인프라 설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10년 설립, 직원수 258명, '25년 매출 507억원)

이번 MOU는 한국도로공사가 미국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축적해 온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 수혜국 중심 사업에서 선진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시공감리, 설계 및 사업관리 등 도로·교통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CES가 보유한 버지니아주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운영 기술력을 결합하여, 향후 현지 입찰 참여 및 프로젝트 수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공사가 인프라 선진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실질적 출발점이다"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하나금융그룹,금융의 핵심인 손님 신뢰 강화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 최우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 담아

하나금융그룹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송원 기자

LH,강남3구 거여새마을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남3구 최초 공공재개발 사업인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은 면적 71,922.4㎡에 최고층수 35층, 12개동, 총 1,67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명은 주민 제안에 따라 '래미안·자이 더 아르케'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 등 대형 평형도 포함돼 수요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체육관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되어 주거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지난 '24년 12월 시공사 선정(삼성물산·GS건설) 후 1년여 만에 진행됐다. LH는 '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토지등 소유자 분양신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7년 이주 및 철거, '28년 착공 등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거여새마을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신뢰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LH의 사업시행 전문성과 민간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귀영 기자